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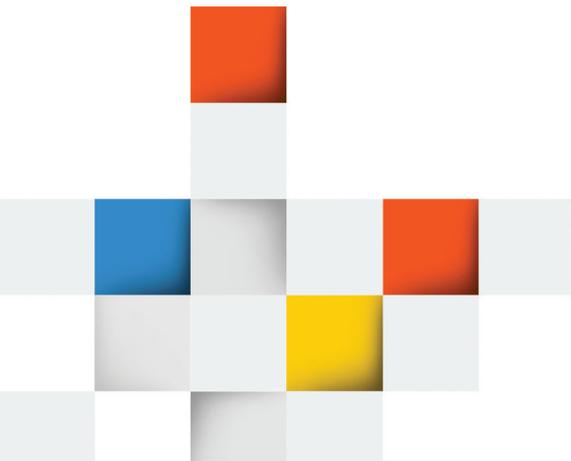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100003-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4
<https://kostat.go.kr/asdk/> 2024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 노동시장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권현지 (서울대학교)

- 2023년의 40~64세 중장년층 취업자는 1,564만 명으로 13년 전인 2010년에 비하여 3백만 명 가량 늘어났다. 50세 이상 중년층 취업자 증가가 여기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55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차이가 큰 폭으로 두드러졌다.
- 중장년층 취업자수 변화는 인구 및 가족구조변화와 관련이 깊다. 해당 기간 큰 폭으로 증가한 55세 이상 인구, 즉 인구 고령화 및 40~50대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미혼 가구 비중이 눈에 띈다.
- 혼인상태와 취업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르다. 남성의 경우 미혼의 증가와 취업자 수 감소 간 관련이 발견된다. 반면, 여성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는 인구, 가족 변화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 변화로 이해된다.
- 사회 전반의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속에서 거주복지시설과 비거주복지시설, 의원과 병원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크게 성장했다. 중장년 여성의 취업자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구조적 요인이다.

중장년층¹⁾은 통상 생애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 기인 40대 및 50대 초반 인구와 그 후 은퇴 전까지

활동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전환기, 즉 50대 후반 및 60대 초반 연령 계층을 포괄한다. 이러한 이해에 따라 이 글에서 중장년층은 40세에서 64세에 이르는 인구 집단을 지칭한다. 이들 집단은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노동시장에 안착이 어려워진 청년이나 고용률이 높아진 고령층에 비하여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이해는 현재 한국 노동시장 및 한국 사회의 중추에 대한 이해라 할 만큼 핵심적이다. 또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소위 생애과정의 황금기라 불리는 중장년기는 경제/사회 활동 참여가 고조되는 시기인 동시에 자녀뿐 아니라 부모 부양의 경제적 책임도 높아지는 시기다. 청년층의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노동시장 이행 연령이 높아지는 한편, 혼인과 출산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중장년층의 가족구조 및 이들의 가족 내 역할에도 상당한 변화가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 초고령 인구의 증가 역시 중장년층 가족의 구조와 역할을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청년기와 노년기를 잇는 일종의 이행기로 이 시기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은 부양가족, 즉 아동 및 청년과 노인의 빈곤은 물론, 본인의 노

1) 중장년(中長年)층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 인식이나 맥락에 따라 유동적이다. 여기서는 40세 안팎에서 시작되는 40~50대의 중년과 통상 55~64세를 의미하는 장년층을 포괄하여 40세에서 64세에 이르는 비교적 광범위한 연령대를 포괄하기로 한다.



년기 빈곤 문제와 직결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이 시기 경제활동의 미비와 원치 않는 가족 형성의 실패는 남은 생애 과정에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각한 정서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최근 두드러지는 인구 현상의 변화로 중장년 연령집단 구성 변화와 혼인상태의 변화, 노동시장 변화를 상호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에 파생되는 산업적 변화가 중장년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도 함께 고찰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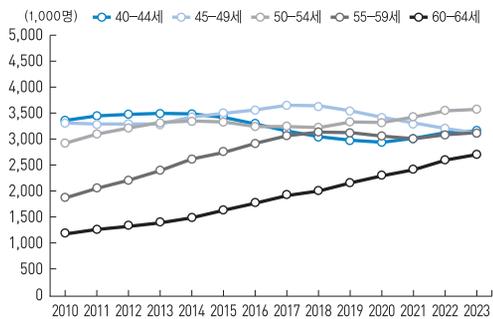
이를 위하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국제비교 자료는 OECD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중장년층 연령별 취업자 수 변화

우선 중장년층의 취업자 수 변화를 살펴보자. 2010년 당시 중장년층 취업자 수는 1,263만 명으로 15세 이상 취업자 수의 52.6%를 차지하였다. 그로부터 13년 후인 2023년, 중장년층의 취업자 수는 1,564만여 명으로 3백만 명 가량 늘어났으며, 15세 이상 취업자 비중도 55.0%로 다소 늘었다. 이 같은 중장년층 취업자 수의 변화는 40대보다는 5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가 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V-22]의 5세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40대 취업자 수는 2010년부터 2023년 사이 거의 늘지 않거나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다. 반면, 55세 이상 취업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0년 당시 55~59세 188만여 명, 60~64세 119만여 명에 불과했던 취업자 수는 2023년 각각 311만여 명과 270만여 명으로 1.66배와 2.28배 증가했다.

[그림 V-22] 중장년층 취업자 수, 201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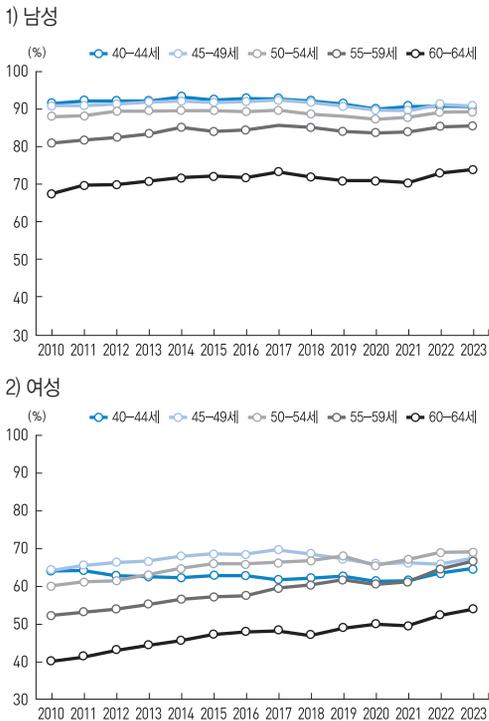


주: 1) 취업자 수는 15세 이상 취업자 중 중장년층 월간 취업자의 평균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한편, 고용률 변화는 취업자 수와 연계되지만 완전히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고용률 변화는 연령별, 성별로 다소 상이한 양상이다. [그림 V-23]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55세 이후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남성에 비해 중년 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상당히 가파르다. 반면 40대 고용률의 경우 유지되거나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다. 특히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여주는 40대 남성 고용률은 여전히 90%를 상회하지만, 최근 감소하는 양상이다. 40대 여성 고용률은 60% 내외로 남성과 큰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대체로 유지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최근 노동시장을 강타했던 코로나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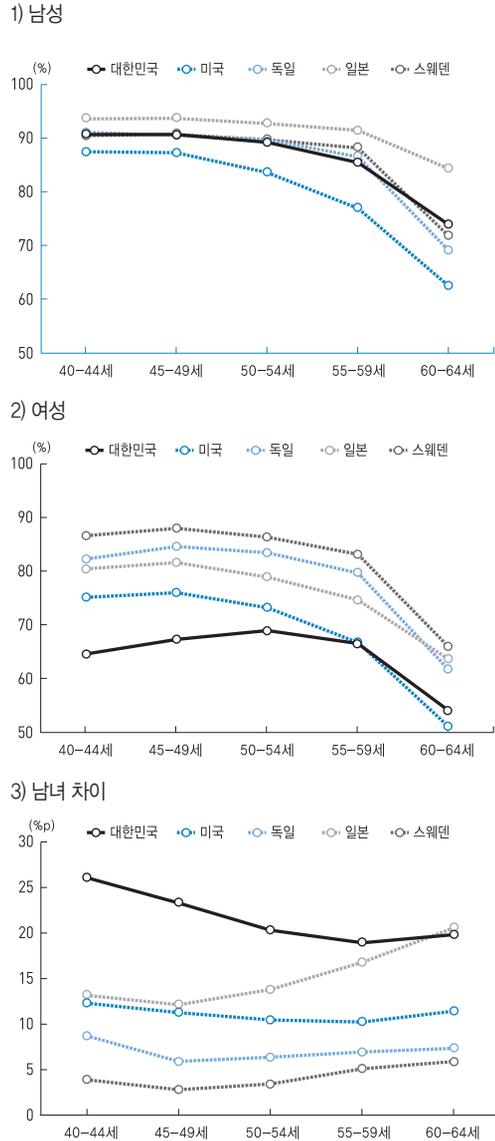
팬데믹의 영향은 노동시장 참여가 가장 활발했던 40대에 가장 컸다. 중장년층 중 2020년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던 연령집단은 45~49세 남성과 여성이었으며, 이들 연령층 여성은 코로나 이후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나타낸다. 50세 이상 여성의 경우 팬데믹에 따른 고용률 변동이 거의 관측되지 않는다.

[그림 V-23] 중장년층의 연령별 고용률, 2010~2023



주: 1) 통계치는 월간 고용률의 산술평균이며,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V-24] 국가별 중장년층 고용률, 2023



출처: OECD, *Employment rate*, OECD Data Explorer, 2023.

한편, 이러한 중장년층 고용률 현황은 다른 국가들과 다른 몇 가지 차이를 보여준다(그림 V-24). 특이한 점은 5개 모든 국가에서 60세

이상 고용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중장년층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40대 남성 고용률은 다른 국



가와 유사한 수준이나, 60세 이후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높다. 일본은 중장년층의 고용률이 가장 높고, 55세 이후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화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중장년층 노동시장은 연령별 성별 고용률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고, 여성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다른 국가에서는 남녀 고용률의 차이가 작고, 연령에 따른 차이가 관측되지 않는다. 반면, 남녀 고용률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한국에서는 특히 40대 남녀 고용률 격차가 현저하다. 일본은 40대의 남녀 차이가 가장 작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차이가 늘어나는 한국의 형태와는 다르다. 이는 상대적으로 양육/학령기 자녀를 둔 40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계속 지체되고, 그 이후 참여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지연된 경력 단절'과 관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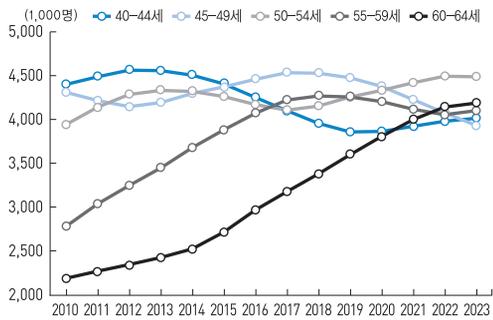
중장년층 인구와 가족의 변화

중장년층 내에서도 취업자 증가는 인구변화와 밀접히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V-25]의 중장년층의 5세별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40대 인구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50세 이상 인구는 201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40대가 최대 다수를 차지했던 2010년 당시의 인구구조²⁾는 13년 후 고스란히 옮겨져

2) 인구규모로 50~54세, 55~59세, 60~64세가 그 뒤를 이었다.

2023년 현재 50~54세 집단이 중장년인구의 최대 다수를 차지한다. 2차 베이비 부머(1968~74년생)인 이들에 이어 1차 베이비 부머에 해당하는 60~64세 인구의 규모가 크다. 전체 인구에서 50대 이상 인구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그림 V-25] 중장년층 인구 수, 2010-2023



주: 1) 주민등록 연앙인구(당해 연도 1월 1일과 12월 31일의 주민등록인구의 산술평균) 기준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중장년층에게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변화는 가족구조의 변화다. [그림 V-26]은 그간 한국 사회에서 주목받아 온 청년의 혼인 지연과 1인 가구 증가가 중장년층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0년 당시 40대 미혼율은 남성 8.8%, 여성 3.0%로 낮았으나, 2023년 40대 미혼 비율은 남성 24.2%, 여성 12.2%로 꺾뚝 뛰어 올라 남성의 경우 4분의 1에 육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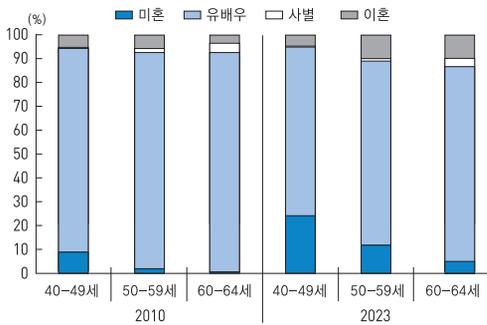
한편, 배우자 없는 50대 이상 인구가 증가한 배경에는 미혼 인구의 증가도 있지만, 그보다 이혼 인구 비율의 증가가 더 두드러진다. 지난 13년 간 60~64세 남성과 여성 집단 내 이혼 인구 비율이 각각 6.4%p와 7.3%p 늘었다. 40대의

경우 혼인 자체가 감소해 이혼 인구의 비율이 크게 늘지 않았으나, 50대 이상은 이혼에 따른 가족구조 변화를 경험한 인구 비중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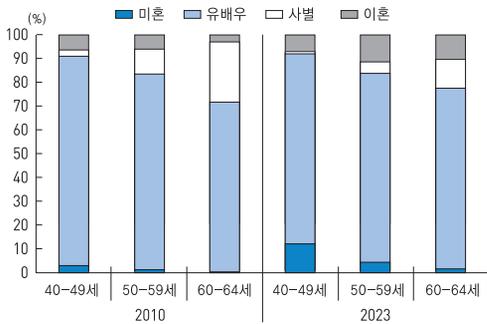
12.5%로 그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다. 미혼 및 이혼의 증가로 설명되는 중장년층 남성의 1인 가구화³⁾는 주로 사별로 인해 1인 가구화가 진행되는 고령 여성의 경우와 상이하다.

[그림 V-26] 중장년층 혼인상태 변화, 2010, 2023

1) 남성



2) 여성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러한 혼인상태 변화로 인한 가족구조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중장년 남성을 중심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16년 당시 40~64세 남성 1인 가구는 11.0%였는데, 2022년 해당 집단은 17.1%로 6%p 이상 늘어났다. 반면 해당 기간 동일 연령대 여성 1인 가구는 10.4%에서

중장년층 인구구조변화와 취업자 변화

이러한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는 연령별 취업자 수 변화와 관련된다. [그림 V-27]과 [그림 V-28]에는 재가중 방법을 활용하여 2010년 당시와 2024년의 연령별 인구 규모 및 혼인상태가 동일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취업자 수를 계산한 결과를 담았다.

우선 2010년과 2024년 사이 40대 남성 취업자는 34만 2천 명 줄어들었다. 반대로 50~64세 집단을 5세 구간으로 나누면 각기 25만 8천 명, 67만 명, 78만 8천 명 늘었다. 재가중 방법을 활용하여 연령분포를 2010년과 동일하게 고정하였을 경우, 이러한 취업자 증감의 대부분이 설명된다. 특히 50~54세 구간 남성의 경우 인구수 증가가 해당 기간 취업자 수 증가를 전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으로 포착된다. 40~44세 역시 이 시기 감소한 취업자 수의 83%를 인구 규모 감소가 설명한다. 다시 말해, 중장년 남성의 취업자 증감의 대부분은 인구 규모 증감으로 설명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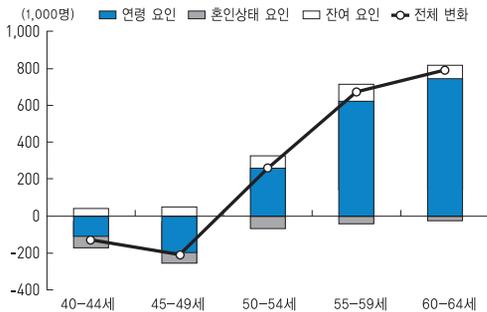
3) 남성과 여성 모두 이혼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이혼한 여성이 1인 가구에 속하는 비율(42.3%)에 비하여 이혼한 남성이 1인 가구에 속한 비율(58.9%)이 높다(2022년 기준).



다는 의미다.

한편, 남성의 혼인상태 변화, 즉 유배우 비중의 하락은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 축소와 관련 있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유배우 남성에 비해 배우자 없는 남성의 경우 체계적으로 고용률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연령과 혼인상태를 통제한 뒤, 모든 연령 계층에서 남는 변화는 모두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고용률이 줄어든 40대에서도 혼인 여부를 통제하면 취업자 수가 늘어난 셈이다(그림 V-27).

[그림 V-27] 중장년층 남성의 요인별 취업자 수 증감, 2010년 대비 2024년



주: 1) '전체 증감'은 2010년 9월 대비 2024년 9월의 취업자 수 증감으로, 아래의 3가지 요인으로 분해함.
 i) '연령 요인'은 연령분포(규모, 비율)가 2010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취업자 수 증감임.
 ii) '혼인상태 요인'은 연령별 혼인상태별 비중이 2010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취업자 수 증감으로, 연령과 혼인상태의 교차항을 통제한 결과임.
 iii) '잔여 요인'은 잔여 변화는 연령분포와 혼인상태 변화를 통제하고 남는 취업자 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9월.

같은 기간 여성의 취업자 규모를 보면, 마찬가지로 40대는 감소한 반면 50대와 64세 이하의 장년층은 큰 폭의 증가를 발견할 수 있다.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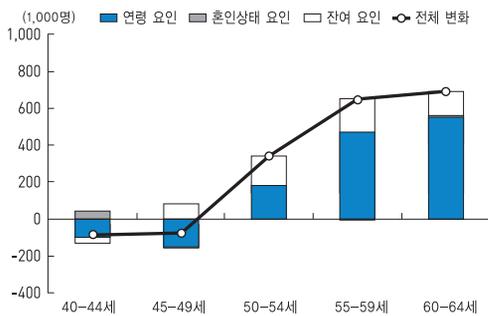
성의 경우에도 이러한 취업자 수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은 인구분포의 변화지만, 남성에 비하여 그 설명력은 낮았다. 40대 취업자 수 감소의 대부분은 인구분포 변화로 설명되지만, 그 감소폭이 40~44세 113%, 45~49세 194%로 인구변화만을 고려하면 더 큰 규모의 취업자 수 감소가 관측되었어야 한다. 50대 이상 중년층의 취업자 수 증가에 미치는 인구규모 변화의 영향은 한층 낮다. 취업자 증가에 대한 인구변화의 설명력은 55~59세 73%, 60~64세 80% 등으로, 동일 연령대 남성의 경우 연령 구조 변화가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경우와 대비된다. 특히 50~54세 여성의 경우 인구 규모 변화의 설명력은 약 53%에 불과하다.

혼인 상태 변화와 취업자 수 변화의 관계도 남성과 다르다. 여성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비하여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오히려 높다. 즉, 중장년 여성에게 혼인상태 변화는 대체로 취업자 수를 늘릴 개연성이 있다. 실제 40~44세의 경우 혼인 상태 변화는 대략 취업자 수 4만 2천 명 정도의 증가를 설명하는 요인이었다. 다만, 혼인상태의 변화가 취업자 수 변화를 설명하는 비중은 남성에 비해 크게 낮았다. 종합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연령분포 및 혼인상태 변화로 설명되지 않는 잔여 요인 변화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에게 연령분포나 혼인상태와 관련 없이 잔여 변화에 따른 고용률이 크게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55~59세의 경우 잔여 변화가 18만

2천 명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50~54세와 60~64세 역시 각각 15만 8천 명, 13만 1천 명으로 변화 폭이 작지 않았다(그림 V-28).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가 취업자 수 변화를 상당 부분 설명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 외에도 장년 여성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그림 V-28] 중장년층 여성의 요인별 취업자 수 증감, 2010년 대비 2024년



주: 1) '전체 증감'은 2010년 9월 대비 2024년 9월의 취업자 수 증감으로, 아래의 3가지 요인으로 분해함.
 i) '연령 요인'은 연령분포(규모, 비율)가 2010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취업자 수 증감임.
 ii) '혼인상태 요인'은 연령별 혼인상태별 비중이 2010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취업자 수 증감으로, 연령과 혼인상태의 교차항을 통제한 결과임.
 iii) '잔여 요인'은 잔여 변화는 연령분포와 혼인상태 변화를 통제하고 남은 취업자 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9월.

중장년 취업자의 산업 변화

인구구조변화 외에 중장년층 취업자 규모 변화를 설명하는 구조 요인으로 주목되는 것은 산

업 구조 변화다. 중장년층 남성과 여성이 주로 일하는 일자리의 산업적 분포가 다르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표 V-3>을 보면, 중장년 남성의 경우 2023년 현재 가장 취업자 수가 많은 산업은 건물 건설업과 도로 화물 운송업이다. 물론 연령별 차이는 존재한다. 40대 남성의 경우 음식점업에 가장 많은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4번째로 많다.

50대의 경우 육상여객운송업이 두 번째로 많은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었으며, 60~64세는 작물재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산업적인 분포는 2014년부터 10년 동안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결과다. 우선, 40대와 50대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종사자의 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40대의 경우 라이더와 같은 소화물 전문 운송업 종사자의 수가 10년 사이 4만 4천여 명이 늘어난 반면⁴⁾, 육상 여객 운송업과 건물 건설업 종사자의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60~64세 취업자의 경우 도로화물 운송업 종사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내, 해당 산업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표 V-4>를 보면, 중장년 여성층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운영업과 음식점업이다. 이는 40대부터 64세까지 공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종사자와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그 규모가 늘어났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청년층에 비하여 중장년층에서 증가율이 높았으며,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청년층의 증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V-3〉 중장년 남성 취업자의 종사 산업, 2014~2023

(1,000명)

	40-49세	50-59세	60-64세
	음식점업 (123.3)	건물 건설업 (192.4)	작물 재배업 (137.1)
2023년	건물 건설업 (117.6)	육상 여객 운송업 (138.3)	육상 여객 운송업 (107.8)
상위 5개 산업 및 취업자 수	도로 화물 운송업 (92.6)	도로 화물 운송업 (130.9)	건물 건설업 (86.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84.6)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126.4)	도로 화물 운송업 (66.3)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83.5)	작물 재배업 (124.7)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61.4)
	소화물 전문 운송업 (+44.6)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1.9)	도로 화물 운송업 (+29.5)
2014년 대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8.7)	소화물 전문 운송업 (+30.6)	작물 재배업 (+28.4)
2023년 최대 증가 산업 및 취업자 수 변화	보관 및 창고업 (+23.6)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22.5)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26.8)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18.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19.5)	건물 건설업 (+26.1)
	반도체 제조업 (+16.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 (+19.4)	육상 여객 운송업 (+22.5)
	육상 여객 운송업 (-81.8)	육상 여객 운송업 (-108.1)	초등 교육기관 (-3.7)
2014년 대비	건물 건설업 (-65.3)	작물 재배업 (-40.9)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3.0)
2023년 최대 감소 산업 및 취업자 수 변화	건설장비 운영업 (-34.6)	건물 건설업 (-29.1)	무점포 소매업 (-2.3)
	도로 화물 운송업 (-32.6)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24.7)	산업 및 전문가단체 (-0.8)
	기타 전문 도매업 (-30.9)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23.7)	해상 운송업 (-0.8)

주: 1) 상반기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상반기.

〈표 V-4〉 중장년 여성 취업자의 종사 산업, 2014~2023

(1,000명)

	40-49세	50-59세	60-64세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87.3)	음식점업 (298.7)	음식점업 (158.2)
2023년	음식점업 (154.8)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264.9)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40.2)
상위 5개 산업 및 취업자 수	초등 교육기관 (126.3)	종합 소매업 (132.1)	작물 재배업 (107.8)
	병원 (106.6)	초등 교육기관 (106.9)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58.4)
	의원 (98.8)	병원 (99.2)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58.4)
	의원 (+44.8)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40.7)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11.2)
2014년 대비	병원 (+34.6)	초등 교육기관 (+47.3)	음식점업 (+66.5)
2023년 최대 증가 산업 및 취업자 수 변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0)	병원 (+44.4)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35.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 (+11.9)	종합 소매업 (+33.3)	병원 (+19.3)
	초등 교육기관 (+10.2)	일반 교습 학원 (+29.9)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12.5)
	음식점업 (-199.0)	음식점업 (-151.8)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6)
2014년 대비	종합 소매업 (-81.7)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78.1)	가구 내 고용활동 (-9.2)
2023년 최대 감소 산업 및 취업자 수 변화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47.4)	작물 재배업 (-76.2)	기타 숙박업 (-1.5)
	봉제·의복 제조업 (-44.0)	가구 내 고용활동 (-40.8)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1.3)
	일반 교습 학원 (-29.3)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40.1)	작물 재배업 (-1.1)

주: 1) 상반기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산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상반기.

통적이다. 40대와 50대의 경우 초등교육기관과 병원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60~64세는 작물재배업과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비중이 높았다. 이는 중장년 여성층의 경우 대인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40대와 50대의 경우 그 중에서도 보건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중장년 여성 취업자의 산업분포는 지난 10여 년간 돌봄서비스 산업의 폭발적 성장 및 이들 산업의 여성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40대 여성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의원/병원, 50대는 비거주 복지시설과 초등교육기관, 병원, 60대는 비거주 복지시설과 음식점, 거주 복지시설, 병원 등이었다. 한편, 40대 여성의 경우 돌봄서비스 부문 외에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 산업분야 종사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만 하다. 여성 취업자 중 전통적 남성 산업부문의 성별 분리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한편, 다수가 종사하는 음식업의 경우 40대와 50대의 경우 종사자가 가장 크게 축소된 부문인 반면, 60대 종사자는 오히려 증가하여 이 부문의 고령화가 관측된다.

〈표 V-5〉를 보면, 이와 같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년층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 변화는 이들 연령층의 직업구성의 변화를 동반한다. 40대와 50대 남성 취업자 중 자동차 운전원의 수는 지난 10여 년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반

면, 60~64세 취업자의 경우 자동차 운전원의 수가 모든 직업 중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40대와 50대의 경우 배달원이 늘어나 자동차 운전원이 배달원으로 대체되고, 운전원은 고령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40대와 50대의 경우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숫

〈표 V-5〉 중장년 남성 취업자의 직업 변화, 2014~2023

(1,000명)

	40-49세	50-59세	60-64세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44.2)	경영 관련 사무원 (+69.8)	자동차 운전원 (+66.5)
2014년 대비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0.5)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36.4)	경영 관련 사무원 (+47.8)
2023년 최대 증가 직업 및 취업자 수 변화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 (+22.2)	배달원 (+23.4)	작물 재배 종사자 (+29.2)
	배달원 (+18.4)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21.2)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22.3)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장치 조작원 (+17.8)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20.7)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0.3)
	자동차 운전원 (-139.3)	자동차 운전원 (-130.1)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8.1)
2014년 대비	매장 판매 종사자 (-83.4)	매장 판매 종사자 (-69.0)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직 (-6.5)
2023년 최대 감소 직업 및 취업자 수 변화	영업 종사자 (-55.3)	작물 재배 종사자 (-38.2)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2.9)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45.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35.8)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2.8)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36.4)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 (-20.6)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2.6)

주: 1) 상반기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직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상반기.



자가 크게 늘어났다. IT 부문의 성장이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노동시장의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V-6〉을 보면, 중장년 여성의 경우 가사 육아도우미의 숫자가 줄고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가 늘어났다. 남성 부문의 운전원과 비슷한 양상으로, 40대와 50대 조리사는 줄고 60대 조리사는 늘어 이 직업군의 고령화가 확인된다. 다만, 40대 여성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 분야 산업 종사자의 규모가 늘어났으나, 남성과 달리 관련 전문가의 규모는 늘어나지 않았다. 경영 관련 사무원이나 회계 및 경리 사무원의 숫자가 늘어나 해당 산업 부문의 여성 종사자 증가는 IT 부문 여성 전문 인력의 증가, 즉 직종내 성별 분리의 완화로 이어졌다기보다는 산업 자체의 성장이 일반 사무 일자리의 증가를 견인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중장년층의 산업과 직업 구조의 변화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취업 구조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즉, 사회 전반의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는 요양원과 같은 거주복지시설과 재가돌봄서비스와 같은 비거주복지시설, 의원과 병원 등 사회서비스의 성장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중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성의 경우 여성만큼 극적인 산업적 변화가 관측되지는 않는다. 다만, IT 부문에서의 전문가와 배달 부문 종사자

가 다소 늘어나는 양상이 확인된다.

한편, 남녀 중장년층에게 가장 핵심적인 일자리로 자리 잡아 온 화물운송업의 자동차 운전원과 음식점업의 조리사가 40대와 50대에서 공히 축소되고 있어 이들 일자리의 전반적인 고령화가 포착되었다.

〈표 V-6〉 중장년 여성 취업자의 직업 변화, 2014-2023

(1,000명)

	40-49세	50-59세	60-64세
	경영 관련 사무원 (+73.8)	회계 및 경리 사무원 (+96.9)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121.4)
2014년 대비	회계 및 경리 사무원 (+41.3)	경영 관련 사무원 (+75.4)	조리사 (+50.9)
2023년 최대 증가 직업 및 취업자 수 변화	학교 교사 (+31.8)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66.9)	매장 판매 종사자 (+41.7)
	행정 사무원 (+30.5)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54.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33.5)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27.8)	행정 사무원 (+51.1)	회계 및 경리 사무원 (+25.5)
	매장 판매 종사자 (-204.7)	가사 및 육아도우미 (-88.4)	가사 및 육아도우미 (-26.5)
2014년 대비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98.7)	조리사 (-80.2)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10.4)
2023년 최대 감소 직업 및 취업자 수 변화	조리사 (-88.8)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79.8)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0.8)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 (-54.0)	작물 재배 종사자 (-61.1)	종교 관련 종사자 (-0.7)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52.6)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44.4)	의복 제조 관련 기능 종사자 (-0.5)

주: 1) 상반기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직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상반기.

맺음말

이 글에서는 40세에서 64세에 이르는 중장년층 인구의 최근 노동시장 참여 양상 변화와 일자리 구조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두드러진 분석 결과는 남성과 여성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다르다는 점과 더불어 사회변화와 연계된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가 이들 연령 계층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남성의 경우 지난 13년간 취업자 규모의 변화, 즉 40대 취업자 수의 감소와 50대 및 60대 초반 취업자 수의 증가를 설명하는 절대적인 요인은 연령 코호트별 인구 규모 및 가족구조 변화였다. 여성의 경우, 40대 취업자 규모의 정체와 50세 이상 취업자 규모의 폭발적 증가 등 구조면에서는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를 설명하는 요인은 달랐다. 연령 코호트별 인구 규모나 가족구조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고, 산업 및 직업 구조 변화의 영향력은 남성에 비해 상당히 컸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일어난 산업과 직업 구조의 변화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일자리 구조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었다. 전통적인 중장년층 일자리는 남녀 공히 고령화되고 있으며, 40~50대 남성에게 새로 부상하는 공통의 일자리는 소화물 배달원으로 최근의 플랫폼 경제의 확산에 따른 불안정 비임금 근로와 관련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 인구 고령화 및 여성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로 촉발된 사회서비스의 증가로 관련 부문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들 부문의 저임금화와 남녀 임금격차는 해결할 문제이지만 여성 일자리 확대 및 공식화라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국내 IT 부문의 성장이 비단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 남녀의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인데, 그럼에도 IT 및 관련 전기전자 전문직 및 기술직의 증가는 남성에게 국한된다.